

## 진단검사 전 처치로 실시하는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환아 보호자의 인식도와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

서미희<sup>1</sup>, 박순주<sup>2\*</sup>

<sup>1</sup>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간호사, <sup>2</sup>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Awareness, Nursing Needs, and Nursing Satisfaction on Conscious Sedation as a Pretreatment for Diagnostic Tests in the Guardians of Hospitalized Children

Mi Hee Seo<sup>1</sup>, Soonjoo Park<sup>2\*</sup>

<sup>1</sup>Nurs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

<sup>2</sup>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환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전 처치로 실시하는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와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를 확인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에 있는 C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병동에 입원하여 진단검사 전 처치로 의식하 진정요법을 받는 환아의 보호자 120명이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2.49 \pm 0.83$ ), 간호요구도( $4.53 \pm 0.40$ )가 간호만족도( $3.81 \pm 0.56$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01$ ).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는 간호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r = .18, p = .048$ ),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 = .20, p = .033$ ).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대상자의 간호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 정도와 간호요구 영역들을 먼저 확인하여 대상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의식하 진정, 인식, 간호요구, 간호만족, 보호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nursing needs, and nursing satisfaction of conscious sedation, and their relationships in the guardians of hospitalized children receiving conscious sed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120 guardians of children who were admitted to the pediatric ward of University Hospital C in D city from July 6 to October 6, 2016 and received conscious sedation as a pretreatment for diagnostic tests. The result showed that the guardians' awareness was relatively low ( $2.49 \pm 0.83$ ) and nursing needs ( $4.53 \pm 0.40$ )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higher than nursing satisfaction ( $3.81 \pm 0.56$ ) ( $p < .001$ ). Awarenes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satisfaction ( $r = .18, p = .048$ ) and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needs and satisfaction ( $r = .20, p = .033$ ). This result suggested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satisfaction of the guardian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awareness and nursing needs of the guardians on conscious sedation.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nursing intervention should be carried out based on the awareness and nursing needs.

**Key Words** : Conscious sedation, Awareness, Nursing needs, Nursing satisfaction, Guardians

\*Corresponding Author : Soonjoo Park(sparkgold@hanmail.net)

Received November 12,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Revised December 3, 2021

Published December 28, 2021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의식하 진정은 중등도 진정 상태로 진단 및 치료목적의 시술을 받는 환자의 불안과 공포 및 통증 등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진정제나 진통제 같은 약물을 투여하여 의식수준이 저하되도록 유도한 처치이다[1,2]. 의식하 진정 상태에 있는 환자는 물음이나 가벼운 접촉에 적절한 반응이 가능하고 기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심혈관계의 기능이 기계 등의 보조 없이 유지되므로 임상현장에서 검사나 시술을 좀 더 원활하게 시행하고 있다[2,3].

의식하 진정요법은 진단검사나 치료를 받을 때 전 처치로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의식하 진정요법을 위한 간호를 구별하기 보다는 보통 검사나 치료 지침 내 하부 항목에 포함되어 다루어져 왔다[2]. 이에 따라 간호분야 내에서도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중재가 구체화 되어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다.

아동에서 의식하 진정요법은 주로 만 2~6세의 아동들에게 시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4]. 아동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의식하 진정요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복잡하며 혈압 변화나 호흡저하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보통 입원 후 적용하는 경향이다[1,5,6]. 따라서 아동과 보호자들은 의식하 진정요법이라는 처치와 입원이라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요구들이 생기게 되고, 간호사는 입원 아동과 보호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질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7,8].

간호요구란 간호사에게 기대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신의 건강유지나 증진, 회복, 질병예방과 같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간호사의 활동을 말한다[8]. 아동이 입원할 경우 보호자는 일상적인 돌봄활동과 함께 증상 관찰 같은 치료과정에 함께 동참하므로[8] 아동간호에서 입원한 아동의 보호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입원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간호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보호자의 불안이나 부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간호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한다[7]. 간호만족도는 기대하거나 요구한 간호를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느끼는 간호에 대한 일지감[9]을 의미하므로 획일화된 간호보다는 환자의 특성에 따른 요구가 반영된 간호제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의식하 진정요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태[4,10]와 달리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영역의 발전은 부족하다. 의식하 진정요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치과 외래에서 단시간 적용하는 경우 환자 보호자들의 인식도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데 한정되어 있고[10-12] 의식하 진정요법의 효과와 실무에 대한 연구[13,14]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의식하 진정요법 간호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없다. 또 환자 보호자의 간호요구도나 간호만족도 연구도 환자의 입원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7,15].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보호자들의 인식도는 낮은 반면 불안도는 높은 여건에서[10-12], 단순히 검사나 치료과정에서의 필요성이나 용이성만을 강조하여 의식하 진정요법을 적용할 경우[1,2] 보호자의 간호만족도 감소는 불가피하고 간호성과의 저하는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인식을 증진하고 의식하 진정 같은 처치의 전후 간호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 개선과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와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를 확인하고 이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전 처치인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 간호요구, 간호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를 확인한다. 둘째,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셋째,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와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및 대상

본 연구설계는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전 처치인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와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 위치한 C대학병원 아동병동에 입원하여 진단검사 전 처치로 의식하 진정요법을 적용받은

만 7세 미만 환아의 주 보호자 가운데 연구에 자발적 참여를 동의한 보호자 12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다만, 암 진단을 받은 환아 보호자는 제외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표본수 계산은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선행연구[11,16]의 효과크기를 파악하여 중간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90으로 입력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12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20명에게 자료 수집하여 모든 자료(100%)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2.2 연구 도구

### 2.2.1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

인식도는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지침서[17,18], 진정요법에 대한 최신지견[5], 병원 매뉴얼[6,19],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 연구[12]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개발한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개발과정을 보면, 먼저 문헌고찰을 거쳐 34개의 구성요소를 추출한 후 초기 문항 92개를 도출하였다. 이 문항들 가운데에서 유사한 의미나 의료 인용 기술들을 삭제한 후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진 1차 예비도구를 구성하였다. 내용타당도는 의식하 진정요법을 받는 환아의 담당의 1명과 임상경력 5년 이상이며 의식하 진정요법을 받는 환아에 대한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 6명이 평가하였다(CVI=.87). 표면타당도는 의식하 진정요법을 받는 입원 환아 보호자 5인과의 면담을 통해 예비문항의 내용과 어휘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등을 점검하며 평가하였다. 타당도 검증을 거쳐 정련한 2차 예비도구를 이용하여 의식하 진정요법을 적용받는 입원 환아 보호자 3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875)와 응답시간, 내용, 반응 등을 확인한 후 최종도구를 정하였다. 개발된 인식도 도구는 총 12문항,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1 이었다.

### 2.2.2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요구도

간호요구도는 김은경 등[20]의 간호요구도 도구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저자에게 도구의 사용허락을 받은 후 의식하 진정요법[5,6,17-19] 및 환자 입원[21,22]과 관련된 선행연구들

과 도구를 비교분석하여 수정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4개 영역(환경·교육·신체·정서) 총 25문항을 도출한 후 대상자에게 적합하도록 어휘를 수정하였다. 그 후 의식하 진정요법 적용 환아의 담당의 1명과 의식하 진정요법 적용 환아에 대한 간호경험이 있고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간호사 6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았다(CVI=.98). 또한 의식하 진정요법 적용 환아의 보호자 5명에게 예비문항의 내용이나 용어 등에 대한 표면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타당도 검증을 거친 예비문항으로 의식하 진정요법 적용 환아의 보호자 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781)와 응답시간, 반응, 내용 등을 확인한 후 최종도구를 정하였다. 이 도구는 환경·교육·신체·정서 간호요구 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요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5 였다.

### 2.2.3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만족도

간호만족도는 기대하거나 요구한 간호를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느끼는 간호에 대한 일치감[9]이므로,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동일한 문항을 이용하여 의식하 진정요법 적용시 수행된 간호에 대해 환아 보호자의 만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도구의 내용타당도는 의식하 진정요법 적용 환아의 담당의(1명)와 의식하 진정요법 적용 환아에 대한 간호경험이 있고 5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는 간호사(6명)에게 검증받았다(CVI=.97). 그리고 의식하 진정요법 적용 환아의 보호자(5명)에게 표면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타당도를 확인한 예비문항으로 의식하 진정요법 적용 환아의 보호자(3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 =.755)와 응답시간, 반응, 내용 등을 확인 후 최종도구를 정하였다. 이 도구는 환경·교육·신체·정서 간호만족 영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만족한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51 이었다.

## 2.3 자료수집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C 대학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DC16QASI0053), 해당 병원 간호

부장과 소아청소년과 담당자, 해당 병동 수간호사에게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해 허락받았다. 2016년 7월 6일에서 10월 6일 사이에 연구공고를 보고 설문조사에 관심을 보인 의식하 진정요법 적용 전 환자의 보호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내용, 연구참여자의 권리, 비밀 및 익명성 보장 등 연구윤리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였고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표현할 경우 서면 동의를 받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나 연구보조원이 환자의 주 보호자에게 의식하 진정요법 인식도와 간호 요구도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설문이 완료된 후 봉투에 넣어 개별적으로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그 후 병원의 정규 과정에 따라 의식하 진정요법 적용에 따른 검사 전 간호가 제공되었다. 의식하 진정요법이 끝나고 병동에 돌아오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후 간호를 수행하였다. 의식하 진정 상태에서 환아가 깨어나는 시간 내에 의식하 진정요법 간호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완료 후 봉투에 넣어 개별적으로 수거함에 넣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였고, 3년간 보관 후 폐기하였다.

### 2.4 자료분석방법

자료는 SPSS 22.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는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차이는 t-test로,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와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환자 보호자는 20세에서 51세의 범위에서 평균 33.10±4.08세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초과가 69.2%였고, 대상자의 90.8%가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환자의 진단명은 81.7%, 검사명은 87.5%가 알고 있었지만, 의식하 진정요법에 사용되는 약물은 28.3%만이 알고 있었다.

환아는 남아가 52.5%였으며, 29일에서 6.56세의 범위에서 평균 2.51±1.81세였으며, 평균 입원 일수는

1일에서 10일의 범위에서 3.07±1.86일이었다. 과거 입원 경험이 있는 환아는 46.7%였으며, 환아의 26.7%는 의식하 진정요법을 적용받은 경험이 있었다. 환아의 진단명은 요로감염, 발작장애, 발달지연, 긴장성 두통 등의 순이었으며, 검사명은 뇌자기공명영상과 뇌파검사, 신장스캔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사용한 진정제는 95.8%가 클로랄 하이드레이트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uardians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Father	33	27.5
		Mother	87	72.5
	Age(year)	<30	15	12.5
		30-39	97	80.8
		≥40	8	6.7
		M±SD	33.1±4.08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37	30.8
		>high school	83	69.2
	Conscious sedation experience	Yes	11	9.2
		No	109	90.8
Diagnosis of the patient	Know	98	81.7	
	Don't know	22	18.3	
Name of patient's examination	Know	105	87.5	
	Don't know	15	12.5	
Used sedatives	Know	34	28.3	
	Don't know	86	71.7	
sex	M	63	52.5	
	F	57	47.5	
Age(year)	<1	36	30.1	
	1≤~(3	34	28.3	
	3≤~(6	46	38.3	
	6≤~(7	4	3.3	
	M±SD	2.51±1.81		
Length of Stay(day)	M±SD	3.07±1.86		
Hospitalization experience	Yes	56	46.7	
	No	64	53.3	
Conscious sedation experience	Yes	32	26.7	
	No	88	73.3	
Hospitalized children	Diagnosis of the patient	Urinary tract infection	49	40.8
		Seizure disorder	30	25.0
		Development delay	20	16.7
		Tension headache	13	10.9
		Meningitis	4	3.3
		Cervical lymphadenitis	3	2.5
		Hypothyroidism	1	0.8
		Brain MRI + EEG	63	52.5
Name of patient's examination	DMSA kidney scan	49	40.8	
	Neck CT	4	3.4	
	Brain CT	3	2.5	
	Thyroid scan	1	0.8	
Used sedatives	Chloral hydrate	115	95.8	
	Chloral hydrate + midazolam	5	4.2	

### 3.2 대상자의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와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

Table 2와 같이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는 평균 2.49±0.83점(5점 만점)이었다. 하위영역 가운데는 ‘의식하 진정요법 전 동의서 작성’에 대한 인식도가 3.51±1.0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필요성, 정의, 의식하 진정요법 전 주의사항 순으로 높았다. 인식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비용, 안정성, 마취와의 차이점, 부작용 순이었다. Table 3과 같이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평균 4.53±0.40점(5점 만점)이었다. 하위영역 가운데는 교육적 간호요구도가 4.68±0.4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환경적, 신체적 간호요구도 순으로 나타났다.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만족도는 평균 3.81±0.56점(5점 만점)이었다. 하위영역 가운데는 교육적 간호만족도가 3.95±0.60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신체적, 환경적 간호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Awareness of conscious sedation (n=120)**

Items	M±SD
<b>Awareness of conscious sedation</b>	2.49±0.83
Fill out consent form before conscious sedation	3.51±1.02
The need for conscious sedation	2.90±1.15
Definition of conscious sedation	2.78±1.10
Precautions before conscious sedation	2.58±1.20
Time required for conscious sedation	2.48±1.14
Effects of conscious sedation	2.48±1.03
Precautions after conscious sedation	2.40±1.13
Drugs used for conscious sedation	2.33±1.05
Side effects of conscious sedation	2.27±1.06
Difference between conscious sedation and anesthesia	2.23±1.05
Stability of conscious sedation	2.23±0.95
Cost of conscious sedation	1.72±0.92

### 3.3 대상자의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의 차이

Table 3과 같이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평균 4.53±0.40점이고, 간호만족도는 평균 3.81±0.56점으로 간호요구도가 간호만족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1$ ). 모든 하위영역에서 간호요구도가 간호만족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환경적 영역에서 간호요구도(4.41±0.57)와 간호만족도(3.52±0.69)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p<.001$ ).

**Table 3. Differences between nursing needs and nursing satisfaction on conscious sedation (n=120)**

Domain	Nursing needs		Nursing satisfaction		t (p)
	M	SD	M	SD	
<b>Overall</b>	4.53	0.40	3.81	0.56	12.70(<.001)
Environmental	4.41	0.57	3.52	0.69	11.15(<.001)
Educational	4.68	0.42	3.95	0.60	11.73(<.001)
Physical	4.38	0.50	3.71	0.69	9.83(<.001)
Emotional	4.54	0.54	3.91	0.76	7.99(<.001)

### 3.4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Table 4와 같이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는 간호요구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영역 중 교육적 간호요구도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016$ ). 반면에, 인식도는 간호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였으며( $p=.048$ ) 하위영역 가운데 환경적 간호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p=.003$ ). 간호요구도는 간호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p=.033$ ), 하위영역 가운데 교육적 간호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028$ ).

## 4. 논의

본 연구는 검사 전 처치로 적용되는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와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를 확인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진단검사 전처치인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인식도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의식하 진정요법을 적용한 검사나 치료 빈도가 상당히 증가하였음[1,4]에도 낮은 인식 수준은 치과를 방문한 환자 보호자의 28%만이 진정요법을 안다고 한 결과[23]와 유사한 경향이다. 이는 임상현장에서 의식하 진정요법은 주요 처치가 아니라 검사나 치료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12] 검사 또는 치료의 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식하 진정요법을 하루 내용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잘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은 성인보다 의식하 진정요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1] 보호자들은 아동 자녀에게 의식하 진정요법을 시행할 때 불안해하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12]. 더불어 환자 보호자는 자녀의 입원 자체만으로도 불안

Table 4. Correlation among awareness, nursing needs, and nursing satisfaction on conscious sedation (n=120)

variables	a	b	c	d	e	f	g	h	i	j	k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r(p)
<b>Awareness (a)</b>	1										
<b>Nursing needs (b)</b>	-.14 (.133)	1									
Environmental (c)	-.09 (.337)	.65 ( $< .001$ )	1								
Educational (d)	-.22 (.016)	.89 ( $< .001$ )	.50 ( $< .001$ )	1							
Physical (e)	-.01 (.938)	.85 ( $< .001$ )	.41 ( $< .001$ )	.61 ( $< .001$ )	1						
Emotional (f)	-.11 (.239)	.79 ( $< .001$ )	.29 (.001)	.62 ( $< .001$ )	.68 ( $< .001$ )	1					
<b>Nursing satisfaction (g)</b>	.18 (.048)	.20 (.033)	.06 (.485)	.10 (.269)	.28 (.002)	.20 (.029)	1				
Environmental (h)	.27 (.003)	.11 (.223)	.05 (.612)	.02 (.812)	.20 (.028)	.10 (.262)	.69 ( $< .001$ )	1			
Educational (i)	.11 (.238)	.20 (.028)	.02 (.848)	.13 (.155)	.25 (.006)	.27 (.003)	.90 ( $< .001$ )	.54 ( $< .001$ )	1		
Physical (j)	.16 (.083)	.16 (.081)	.07 (.452)	.08 (.391)	.25 (.006)	.11 (.234)	.89 ( $< .001$ )	.49 ( $< .001$ )	.69 ( $< .001$ )	1	
Emotional (k)	.13 (.153)	.16 (.086)	.11 (.225)	.07 (.449)	.22 (.015)	.13 (.167)	.83 ( $< .001$ )	.45 ( $< .001$ )	.64 ( $< .001$ )	.75 ( $< .001$ )	1

해하므로[8,22]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된다면 보호자가 느낄 수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 [1,2,5] 환아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 문항 중 '검사 시행 전 동의서를 받는 것에 대해 안다'의 인식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의료인은 모든 검사 전에 보호자에게 검사에 대한 정보를 서면과 구두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요구하는 현 의료체계의 정책 때문[2,5]에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 문항 가운데 의식하 진정요법의 필요성-정의-전 주의사항-검사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도를 보였는데 이 또한 동의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의료인이 설명해 주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반대로 의식하 진정요법의 사용약물-부작용-마취와의 차이점-안정성-검사비용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는데, 이는 이러한 정보가 설명과정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소아치과에 내원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보호자들은 부작용 발생이나 의식회복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불안해하였으며[11],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44%가 안정성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였다 [12]. 또 환아 보호자들은 의식하 진정요법이 단순히 잠을 재우는 검사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전신마취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12]. 이를 통해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오히려 보호자들의 인식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검사나 치료 전후 간호를 제공할 때 처치의 목적과 필요성뿐 아니라 의식하 진정요법에 사용되는 약물과 해당 약물의 안정성, 마취와의 차이, 비용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 연구를 제안한다.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높은 편이었고 교육, 정서, 환경, 신체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술환자[21]나 회복실 환자 [22]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적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환자나 보호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간호사에게 질병 및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받기를 희망함 [25]을 알 수 있으며,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해 보다 많은 환자 또는 보호자 교육이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만족도는 보통수준이었고 교육, 정서, 신체, 환경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환자의 간호만족도를 조사한 연구[16]에서 교육적 간호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에 급성기 환아 보호자[26] 대상 연구에서 신체적 간호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교육적 간호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이는 대상자의 급성 또는 만성 건강상태에 따라 간호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성기에는 신체적 간호가 충족되었을 때 간호만족도가 높고, 만성기에는 교육적 간호가 충족되었을 때 간호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상태 같은 개인 특성에 따른 요구에 맞춰 간호를 제공할 때 간호만족도가 높아짐을 시사하며,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중재 시에도 환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간호요구도에 비해 간호만족도가 모든 영역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환자[16]나 입원환자[27]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간호만족은 환자가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간호와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느끼는 간호에 대한 일치감[9]으로 간호행위에 대한 환자의 평가이다. 입원 아동 보호자는 병실에서 환아와 함께 있으면서 치료과정에 참여하므로 간호사의 아동에 대한 관심표현이나 적합한 물품을 제공받는 것, 투약 설명, 부모가 할 수 있는 처치교육, 정맥주사 기술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간호를 요구하고 평가한다[8]. 하지만, 환자의 세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간호사가 생각하는 기준 등에 따라 간호가 제공되면 환자와 간호사의 간호요구나 간호만족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27]. 환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간호제공과 간호 만족감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28]가 있으므로 대상자의 간호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요구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환자 보호자의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 정도와 이들이 요구하는 간호, 제공된 간호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였을 때, 인식도는 간호요구도와 상관관계가 없었고, 간호만족도와는 약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만, 인식도가 간호요구도 하부 영역 중 교육적 영역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통해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환아의 치료나 간호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설명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결과[29]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간호사는 먼저 보호자의 인식도를 파악하고, 인식도가 낮을수록 교육제공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환자 및 보호자의 간호요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요구도는 간호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암환자[16]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간호실무 현장에서 대상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간호수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간호요구도 중 신체적 영역이 전반

적인 간호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를 볼 때, 간호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신체적 간호요구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환아의 신체적 상태가 보호자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30]. 정서적 간호요구도는 교육적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6]. 치료나 처치 등의 과정이나 상황 등을 잘 알지 못할 때 불안이나 두려움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는 적절한 정보제공이나 교육으로 완화될 수 있으므로[7,16] 대상자들의 정서적 간호요구가 교육적 간호 제공으로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상자들이 표현하는 정서적 간호요구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요구에 맞는 간호를 제공한다면 교육적 간호만족도 뿐만 아니라 전체 간호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요구도 하위영역들 가운데 간호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환자의 요구에 기반한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간호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었으나 주요 검사와정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 명확하게 수행되지 않았던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간호영역을 확인하였고, 의식하 진정요법을 위한 간호중재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 환자 보호자들은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해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고, 간호요구도는 높은 편이었으나 간호만족도는 보통수준이었다.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도와 교육적 간호요구도 그리고 간호요구도와 간호만족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식하 진정요법 적용시 수행되는 간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식하 진정요법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인식도가 낮은 영역을 파악하여 간호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간호요구 영역을 확인한 후 요구 기반 간호를 수행할 때 간호만족도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며,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인식도와 간호요구도, 간호만족도를 다양한 방향으로 측정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C. J. Cote & S. Wilson. (2019). Guidelines for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pediatric patients before, during and after sedation for diagnostic and therapeutic procedure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43(6), e20191000. DOI : 10.1542/peds.2019-1000
- [2] *Korean guideline of pediatric procedural sedation*. (2017). Seoul : The Korean Society of Pediatric Anesthesiologists.
- [3] J. Song. (2013). Procedural sedation and analgesia in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6(4), 271-278. DOI : 10.5124/jkma.2013.56.4.27
- [4] K. Lee, J. S. Song, S-O. Kim, J. Lee, B. Choi & H-J. Choi. (2018). The changes of sedation in the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Yonsei university dental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45(2), 154-161. DOI : 10.5933/JKAPD.2018.45.2.154
- [5] T. D. Kweon. (2011). Update of sedation in view of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standards.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54(12), 1284-1288. DOI : 10.5124/jkma.2011.54.12.1284
- [6] Catholic University St. Mary's Hospital Daejeon. (2015). Pediatric Ward Sedation Manual.
- [7] I. Jin & H. H. Cho. (2021).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nursing care as perceived by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in South Korea.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7(3), 266-275. DOI : 10.4094/chnr.2021.27.3.266
- [8] Y. Y. Kim & H. Cho. (2017). A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needs of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s and quality of care in pediatric uni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155-166. DOI : 10.15207/JKCS.2017.8.10.155
- [9] A. Maurice-Szamburski, N. Bruder, A. Loundou, X. Capdevila & P. Auquier. (201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erioperative satisfaction questionnaire in regional anesthesia. *Anesthesiology*, 118, 78-87. DOI : 10.1097/ALN.0b013e31827469f2
- [10] C-H. Bae, H. Kim, K-A. Cho, M-S. Kim, K-S. Seo & H-J. Kim. (2014). A survey of sedation practices in the Korean dentistry.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Society of Anesthesiology*, 14(1), 29 - 39. DOI : 10.17245/jkdsa.2014.14.1.29
- [11] H. H. Min, M. R. Lee & M. G. Ji. (2009). On the awareness and satisfaction of parents with sedation therapy of children visiting pediatric dentistr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Dental Hygiene*, 9(2), 137-146.
- [12] H. J. Choi, J. H. Park, G. C. Kim & S. C. Choi. (2008). A survey of guardians's cognition level and satisfaction rate about conscious sed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35(4), 700- 708.
- [13] J. S. Koo & J. H. Choi. (2011). Conscious sedation during gastrointestinal endoscopy: midazolam vs propofol. *Korean Journal of Gastrointestinal Endoscopy*, 42(2), 67-73.
- [14] J. H. Kim, M. S. Kim, D. Y. Lee & S. J. Kim. (2008). Study of sedation according to neurologic and non-neurologic pediatric patients. *Journal of Korean Pediatrics*, 51(10), 1047-1051.
- [15] S. Tsironi & G. Koulierakis. (2019). Factors affecting parents' satisfaction with pediatric wards. *Japan Journal of Nursing Science*, 16(2), 212-220. DOI : 10.1111/jjns.12239.
- [16] J. A. Kim, K. H. Kim, H. S. Kang & J. S. Kim. (2014). Nursing need and satisfaction of patients in hospice ward. *Journal of the Korea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7(4), 248-258. DOI : 10.14475/kjhpc.2014.17.4.248
- [17] S. O. Kim & J. S. Kim. (2012). Introduction of sedation guidelines and need for sedationist. *Journal of the Korean Pediatric Dentistry*, 39(3), 314-24. DOI : 10.5933/jkapd.2012.39.3.314
- [18] C. J. Cote & S. Wilson. (2016). Guidelines for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pediatric patients before, during and after sedation for diagnostic and therapeutic procedures: update 2016.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38(1), e20161212. DOI : 10.1542/peds.2016-1212
- [19] Eulji University Hospital Daejeon. (2016). The Sedation Manual of New Nurse.
- [20] E. K. Kim et al. (2002). A study on nursing needs of patients in the recovery roo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9(1), 86-100.
- [21] H. K. Eom, S. H. Ko & Y. H. Lee. (2016). Nursing needs for elderly patients with regional anesthesia during op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6(5), 351-360.



DOI : 10.5392/JKCA.2016.16.05.351

- [22] K. H. Yoo. (2007). A correlational study on uncertainty, mastery and appraisal of uncertainty in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14(2), 213-220.  
DOI: 10.4040/jkan.2007.37.4.594
- [23] H. Choi, J. Park, G. Kim & S. Choi, (2008). A survey of guardians' cognition rate about conscious seda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35(4), 700-708.
- [24] Y. S. Jeong & J. S. Kim. (2005). Parent satisfaction with inpatient hospital services in children's hospitals. *Journal of Korean Child Health Nursing*, 11(3), 273-281.
- [25] A. R. Kim, M. G. Choi, J. H. Noh, T. S. Sohn, J. M. Bae & S. Kim. (2009). Informational needs of postoperative gastric cancer patients. *Journal of Korean Gastric Cancer Association*, 9(3), 117-127.
- [26] J. Oh. (2010). Perception of uncertainty and satisfaction for nursing service of children's parents visiting to pediatrics out patient department and emergency room. *Journal of Korean Parent-Child Health*, 13(1), 35-43.
- [27] N. Y. Lee, J. Y. Han & M. J. Heo. (2015). Comparison of satisfaction and need on nursing service perceived by the patients and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6(1), 169-177.  
DOI : 10.7465/jkdi.2015.26.1.169.
- [28] R. Suhonen, et al. (2012). Patient satisfaction as an outcome of individualised nursing care.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26(2), 372-380.  
DOI : 10.1111/j.1471-6712.2011.00943.x
- [29] Y-E. Kwon & B-H. Kim. (2013). The effects of video-audio information provision on physical discomfort, anxiety, and nursing satisfaction of the clients for gastroscop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2), 231-239.  
DOI : 10.7475/kjan.2013.25.2.231
- [30] S. Tsironi, & G. Koulierakis. (2019). Factors affecting parents' satisfaction with pediatric wards, *Japan Journal of Nursing Science*, 16(2), 212-220.  
DOI : 10.1111/jjns.12239

서 미 희(Mi Hee Seo)

[정회원]



- 2017년 2월 : 을지대학교(간호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간호사
- 관심분야 : 아동간호, 마취 간호
- E-Mail : skymiheesky@naver.com

박 순 주(Soonjoo Park)

[정회원]



- 2001년 8월 : 연세대학교(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2019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2019년 3월~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자 간호, 중환자, 간호중재와 교육
- E-Mail : sparkgold@hanmail.net